

제 3 장

우리가 어떻게 하야야 돌아가리이까?



제 3장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제 3장]

1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홀연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2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3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케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케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4 그 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5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군의 샅에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6 나 여호와는 변역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시니라 7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도다 8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헌물이라 9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0 만군의 여호와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11 만군의 여호와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12 너희 땅이 아름답다와지므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13 여호와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14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15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16 그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17 만군의 여호와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18 그 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V. 심판을 받도록 소환함 3:1~15

1. 심판의 날에 대한 경고 3:1~6

1. “만군의 여호와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홀연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3장 1~6절에 기술된 다가올 심판의 모습은 2:17의 “공의의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백성들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다. 여기서 그 백성들은 ‘공의의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경고를 받는다. 왜냐하면 하늘의 재판장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과 의를 시행하시기 위해 친히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 기별은 말라기 당시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처리하실 것이라는 일종의 경고였다. 그러나 말라기 당시의 유대인들을 향한 경고의 기별에 참가하여 이 예언은 또한 메시아적 의미, 곧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그리고 그분의 오심을 예비할 이에 대한 놀라운 예언이 들어있다.

내 사자 : 구약에서는 말 3:1, 4:5~6, 사 40:3에서만 메시아의 오심에 앞서 한 사람이 먼저 올 것을 알려준다. 내 사자((히)말라기)가 내(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다! 예수님은 침례 요한이 회개를 가르침으로써 주의 “앞에서 길을 예비한 사자” 임을 확인시켜주셨다(마 11:10).

그 전에 임하리니 : 즉 조사심판사업을 하시기 위해 지성소에 “임하리니”

언약의 사자 : “언약의 천사” 주 혹은 신격의 제 2위이신 그리스도이시므로 “내 사자”와는 분명히 구별된다. “언약의 사자”에 관한 이 예

언은 그리스도 초림시에 그분이 자기 성전에 가셨을 때 뿐 아니라(DA, 161) 지상역사의 종말과 재림에 관련된 사건들에도 적용된다(GC, 424).

〈지성소에서 행하는 조사 심판〉

그리스도께서는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했던 바와 같이 지상에 임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모형으로 표상된 바와 같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지성소에 임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선지자 다니엘은 그분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앞에 나아왔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는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라고 말한다. 그런데 그는 세상으로 온 것을 말하지 않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와 그 앞에 인도되매” (단 7:13) 라고 하였다. 말라기 선지자 역시 이때의 오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다. “너희의 구하는 바주가 홀연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말 3:1).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도 갑작스럽고도 예기치 못했던 사건이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리로 가시는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주 예수님께서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 (살후 1:7, 8)기 위하여 세상에 나타나 시기만 기대하고 있었다(GC, 424).

〈조사 심판과 어린양의 혼인 잔치〉

주님께서 당신의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일 외에, 또한 그분의 재림, 곧 심판을 행하기 위하여 오시는 일을 말라기는 다음과 같이 예언한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말 3:5). 유다도 같은 사건에 대하여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못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유 14, 15)고 말한다. 이러한 임하심(집행심판 곧 재림)과 주님께서 당신의 성전에 임하시는 일(조사심판, 지성소)은 전혀 다른 별개의 사건이다. 다니엘서 8장 1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는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것과 다니엘서 7장 13절에 묘사된 대로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 앞에 나아가시는 것과 말라기가 예언한 것처럼 주님께서 홀연히 그 전에 임하시는 것 등의 세 가지는 모두 같은 사건을 묘사하고 있다.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의 비유에서 직접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랑이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사건이다(GC, 426).

〈항구적 측정 기구〉

우리들의 품성 중에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수 없는 것들은 모두 다 책망을 받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깨끗케 하시는 주님께 복종하면 모든 찌꺼기와 쓰레기들을 그분께서 다 태워 없애실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품성을 재는 표준을 조작해 내지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께서 한 표준을 주셔서 그것으로 모든 사람의 품성이 시험 받게 하셨기 때문이다.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고 명하신 그 율법으로 시험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에게서 배울 수 있도록 빛과 기회를 주신다. 이는 우리의 인격과 정신이 그리스도와 같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어떤 인간의 표준에 맞추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규제하고 품성을 꼴짓도록 해야 한다.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가 그대로 마음에 심어지면 그 진리는 항상 안에서 밖으로 역사한다. 그것은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을 향한 말과 정신과 행동에 나타날 것이다(말 3:1~3 인용), (편지 20a, 1893).

2.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누가 능히 당하며 : 유대인들은 심판으로 이방인들을 징벌하기 위해 메시야가 오실 것이라고 믿었다. 그와 반대로 말라기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먼저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 : 불이 찌꺼기에서 금속을 분리해 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 악인들로부터 의인들을 분리해 내신다(불-좋은 금속을 가려내기 위한 제련의 도구).

표백하는 자의 잿물 : 잿물이 의복의 오물을 제거하듯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의 모든 사악함이 제거될 것이다(잿물-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도구). 하나님의 심판은 깨끗하게 하는 정제의 목적을 가진다.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 대답은 오직 회개하고 정결케 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의 싸움이 끝난 경험을 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제사장 직분을 표상하는 구약 시대의 상징적 의식에 있어서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은 제사장이 하는 연중 봉사 중의 맨 마지막 것이었다. 그것은 속죄의 사업을 완성하는 일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도말하고 제거해 버리는 일이었다. 그것은 하늘의 기록책에 적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도말하고 제거하시는 하늘의 대제사장 그리스도의 최후의 봉사를 예표 하는 것이었다. 이 봉사는 조사하는 일, 곧 심판하는 일로써 그리스도께서 권세와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일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건이 결정된 후가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 22:12)고 말씀하

셨다. 또한 계시록 14장 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라” 고 한 첫째 천사의 기별은 재림직전에 있을 이 심판을 말한 것이다(GC, 352).

〈재림하실 주를 영접할 준비〉

그러나 백성들은 아직도 그들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아직도 이루어야 할 준비의 과업이 남아 있었다. 하늘성소에서 그리스도의 증보 사업이 그치게 될 때 세상에 살아 있는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증보자 없이 서게 될 것이다. 그들의 옷은 흠이 없어야 하고, 그들의 품성은 피 뿌림을 통하여 죄에서 깨끗해져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 자신의 꾸준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악과의 투쟁에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소에서 도말되고 있는 동안,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에 이 사업이 더욱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 일이 완성될 때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그 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말 3:4)될 것이다. 주님께서 오실 때에 당신의 것으로 받으실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엡 5:27)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 때에 교회는 “아침빛 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벌인 군대같이 엄위”(아 6:10)가 있을 것이다(GC, 424).

3.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케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케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4 그 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레위 자손 : 제사장들은 특별히 모범과 교훈을 통해 백성을 의로 인도해야 할 가장 큰 책임을 가진 자들이다. "레위 자손"에 대한 징벌은 그들로부터 악을 제거함으로써 그들의 영혼을 깨끗케 할 뿐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기에 합당하게 만들어 거룩함 가운데 향상하도록 양육하기 위해 계획된 것이다. 신실치 못한 제사장들은 말라기가 이미 예언한 것처럼 제거될 것이며 오직 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드려 여호와께 기쁨이 될 의로운 제사장들만이 신실한 옛날 제사장들처럼 남게 될 것이다.

제사장들과 백성이 죄를 제거한다면 하나님의 은총은 회복될 것이다 (PK, 706).

〈한가지 목적〉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케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케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금과 은은 정제되고 난 다음에야 그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듯이 우리도 역시 그렇다. 정련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은 세공사는 은을 조각조각 뺏아서 도가니에 넣고는 그 도가니를 적당한 온도의 불 위에 올려놓는다. 그리고는 은이 녹을 때까지 주의 깊게 관찰한다. 그러다가 이물질이 도가니 맨 위로 올라오게 되면 은 세공사는 그 이물질들을 제거해 낸다. 동시에 은 세공사는 그 은이 너무 높은 열 때문에 손상을 입지 않도록 불 속에 있는 은을 항상 지켜보고 있다. 불을 더 뜨겁게 해서 이물질을 제거해 낼 때마다 은 세공사는 도가니 위로 몸을 굽혀 녹은 은에 자기 모습을 비쳐본다. 그 모습이 처음에는 희미해 얼굴을 알아보기가 힘들지만, 불의 강

도를 높일 때마다 얼굴 모습이 점점 더 분명해진다. 은 세공사가 자기 얼굴을 분명히 볼 수 있을 때 정련 과정은 모두 다 끝이 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가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든다는 목적을 위해 우리를 부수어서 고난의 도가니 속으로 집어넣는다.

〈“내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가?” (How My Heart Has Changed?)〉

“나는 지난 몇 년 동안에 편안한 날을 별로 갖지 못했다. 나는 엘라베마 감옥에 다섯 번 투옥되었고 우리 집은 두 번 폭파되었다. 나와 내 가족을 죽이겠다는 위협을 거의 며칠에 한 번씩 받기도 했으며, 칼에 찔려 거의 죽을 뻔 하기도 했다. 더 이상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 있을지 정직하게 말해서 나 자신이 의심스럽다. 정말 조용하고 쉽게 살고 싶은 유혹을 시간마다 받는다. 그러나 이런 유혹을 받을 때마다 내가 힘을 얻고 굴하지 않는 원인은 주님께서 너희가 나의 명예를 메면 너희 짐이 가벼워질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말씀 때문이었다. 나는 나의 고통의 체험을 통하여 흑암이 얼마나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를 배웠다. 주님을 믿을 때 고통은 오히려 창조적인 능력(creative force)으로 변한다는 것을 여러 번 체험하였다. 나의 개인적인 불행은 나를 변화시키며 다른 사람들을 고쳐줄 수 있는 기회인 것이다. 사도 바울이 자랑스럽게 ‘나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자국)을 지닌다.’ 라고 한 말을 실감 있게 이해한다.”

위의 글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가장 고통스러운 시절에(크리스천 센츄리)지에 기고한 글이다.

〈정련하시는 과정〉

“이 말씀 속에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사람의 마음을 세련되게 하시고,

순결하게 하시는 과정이 묘사되어 있다. 그 과정이 영혼에게는 큰 시험이지만 이 방법에 의해서만 이 찌꺼기가 제거될 수가 있다. 우리가 시련을 견뎌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주께서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디를 깨끗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아신다. 그분은 우리가 시련의 풀무 속에서 온전히 다 타서 없어질 때까지 버려두시지 않으신다. 은을 정련하시는 연단자로서 그분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이 보일 때까지 그분의 자녀들을 순결케 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계신다. 비록 고난의 불길이 우리 주위를 태우고 때로는 그 불이 우리를 완전히 삼키지나 않을까 하여 두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은 이때에도 우리가 승리한 후 그분 안에서 마음이 자유로울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하고 있다. 풀무불은 순결하고 세련되게는 하지만 삼키고 멸망시키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 가운데서 레위 자손을 정결케 하신 것과 같이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우리를 연단하신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제물을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안교 일꾼 1905. 2. 7).

〈모든 시험이 다 필요하지만 반복되지는 않음〉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개선할 능력과 재능을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신앙 생애에 새롭고 산 경험이 필요하다. 아무리 많은 과거의 경험이라도 현재의 신앙을 충족시킬 수가 없고 우리의 오늘 당한 난관들을 극복할 능력이 되지 못한다. 우리가 승리하려면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하고 매일 신선한 힘을 받아야 한다. 모든 면에 있어서 두 번씩 꼭 같은 조건하에 놓이는 경우는 좀처럼 없다. 인생의 드라마에서 각 사람은 그 사람만 당해야 하는 시련과 시험이 있다. 그러나 아주 꼭 같은 시련이 두 번씩 오는 일은 거의 없다. 각 사람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그의 품성과 환경에서 독특한 경험을 갖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향한 독특한 사업과 목적을 갖고 계신다. 아무리 작은 행동이라도 모든 행동은 우리의 경험 가운데서 그것이

차지하는 자리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계속해서 빛을 받아야 하고 경험해야 한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것들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기꺼이 주시는 분이시다” (리뷰 1886. 6. 22).

5.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군의 샅에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6 나 여호와는 변역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심판하러 : 다시 말하면, “여기 심판이 있다!” 로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라는 질문(2:17)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다. 여기서는 조사 심판이 아닌 심판을 집행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재림을 의미한다.

술수하는자 : 이교의 마술을 행하던 자들(출 22:18, 신 18:10),

거짓 맹세하는자 : 「70인역」 “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자들”

과부 고아 나그네 : 유대인들에게는 그들 가운데 사는 "나그네"나 외국인들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말도록 금령이 주어졌다(출 22:21, 신 24:17). 여기서 여호와께서는 그분이 악을 못 본채 하신다는 비난을 설득력 있게 반박하신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을 향한 그분의 영원한 목적은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다. 그분은 그들을 징벌하고 단련하고 교정하실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은 그들을 회개하도록 이끌어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Ⅵ. 3:7~12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에 대한 특별 기소

7.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도다.”

너희가 떠나 :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으나 그 백성은 특별히 십일조와 헌물에서 그분께 신실하지 못했다.

내게로 돌아오라 : 선지자의 기별의 요지는 죄인들에게 심판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를 엄숙하게 상기시키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호소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삶 속에서 철저한 개혁을 이루는 것이다. 그것이 요엘서의 주제이다.

(을 2:12,13) “여호와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어떻게 : 그 백성은 다시 하나님께 반문하는 가운데 그들의 위선적인 자기변명의 정신을 나타낸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는 마음의 변화, 죄에서 떠나게 하는 행동의 변화)-자복(안식)-헌신(의지의 굴복)-믿음과 받으심

8.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

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 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헌물이라.”

단도직입적으로 말라기는 그 백성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데 그들은 그분께 마땅히 드려야 할 “십일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았다. 어떤 이들은 “십일조”에서처럼 “헌물”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의 청지기로서 자신의 의무를 인식하는 사람은 자기의 능력에 따라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고전 16:2) 아낌 없이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봉사를 흠치는 도둑〉

“자신들을 주님의 편에 두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주께서 요구하시는 봉사를 주님께로부터 흠치고 있는 것이다. 주의 집인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그분께 집세를 어느 정도나 내고 있는가? 그들은 그들이 세상을 창조하거나 한 것처럼 행하고, 그들이 가진 것을 그들 좋을 대로 쓸 수 있는 권리라도 가진 것같이 행한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들의 달란트를 잘못 사용한 것을 포해 놓고 계신다” (원고 50, 1901).

9.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 유다의 죄로 인하여 온 나라가 신 28:15~42절에 묘사된 기근, 흉년등의 저주를 받게 되었다. 그 “저주”가 수확의 부족과 경작지의 황폐화였던 것을 시사한다.

하나님께서서는 모든 사람들의 소유물 위에 그 손을 얹으시고 말씀하신다. 나는 우주의 소유자이다. 이 물건들은 나의 것이다. 그대가 빼돌린 십일금은 내가 흑암의 지경에 있는 자들과 율법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 성

경을 열고 가르치는 일을 할 나의 종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따로 떼어 놓은 것이다. 그대의 욕망을 채우고자 내가 떼어 놓은 자금을 사용함으로써, 그대는 내가 영혼들을 위하여 마련한 빛을 그들로부터 약탈해 간 것이다. 그대는 나에게 충성심을 보일 기회가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그대는 나를 약탈하였다. 그대는 나의 적립금을 훔쳤다.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6T, 387).

10.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므로 저주 받게 된 데 대한 치료책은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이는 것이었다. 십일조는 겁이날 정도로 부담스러운 의무가 될 수도 있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하나님께 드리고도 재정적으로 버틸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이 굶어 죽지는 않을까?” 하나님은 그런 두려움을 가라앉히기 위하여 유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도전하셨다. 다른 말로 하면 “시험 삼아 십일조를 한번 드려보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라” 만일 우리가 십일조와 관련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분은 그 저주를 들어 옮기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때에 맞는 비가 내리고(하늘 문을 열고) 그것을 쌓을 곳이 부족할 정도로 풍성한 수확을 거둘것이다. 존 록펠러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만일 내가 가난한 소년이었을 때에 십일조 드리는 일을 배우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수백만 달러의 십일조를 결코 할 수 없을 것이다.”

11.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12. “너희 땅이 아름다와지므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와 말이니라.”

하나님은 황충 곧 농작물에 큰 해를 끼치던 메뚜기 떼를 금하여 곡식을 망치지 않게 하시고, 포도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심으로 십일조를 성실히 바치는 자들에게 물질적인 번영을 약속하신다. 심지어 이방인을 포함한 열방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유다에 베푸신 복을 보고 그들의 땅을 아름다운 땅이라 이름 할 것이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이들에게 풍성한 축복을 내려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재산을 흠어 버리실 수도 있음〉

재산을 이기적인 목적으로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이 그들의 소유를 흠으신다 하더라도 놀랄 필요가 없다. 주의 일과 그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의당 버려야 할 것을 붙잡아 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서 심판하실 것이다. 계속 많은 손실을 보게 될 것이다. 만약 주의 청지기들이 주님께로부터 빌려 받은 재산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기를 거절하면 주께서는 그 재산을 흠어 버리실 수도 있으시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손실 중에서 하나도 찾지 못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의무를 태만히 한 것을 생각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하지만 그들의 경우는 그보다 훨씬 더 절망적일지도 모른다(안교 1905. 2. 21).

13. “여호와께서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14.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15.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여기서 선지자는 백성의 사악한 불평과(3:13~15)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이 받을 상급을 대조한다.(3:16~18)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시간낭비라고 말하고 “그것이 내게 무슨 이익인가?” 하며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닌 가식적인 예배를 드렸다. 그들의 금식과 눈물이 하나님의 은총을 가져오지 못한 것은 그들의 삶이 죄로 가득했기 때문이다. 비록 이 불평하는 자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성실히 섬긴다고 고백했지만 그들은 경제적으로 잘 지내지(‘유익’) 못했다. 반면에 교만한자, 악을 행하는 자, 심지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은 변성하는 것처럼 보였다. 일찍이 백성들은 자기들(소위 ‘의인들’)은 빈곤한데 행악자들은 번창하고 아무 벌을 받지 않고 있으니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말한바 있다.(2:17) 이제 그들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시간과 정력의 낭비라고 결정했다. 주님은 4:1~3절에서 그들의 비난에 답하실 것이다.

〈두 집단의 사람들〉

말라기 3장에는 두 집단의 사람들이 나온다. 여기서 주께서는 그분의 백성이라고 고백하기는 하지만 신실한 파수꾼들이 아닌 사람들을 쳐서 심한 책망의 말씀을 하신다. 성령을 받지 않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계명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

라” 누가 그들에게 슬프게 행하라고 하였는가?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다. 그들의 슬픔은 그들 자신의 뜻과 성화되지 못한 정신의 소산이다. 그들은 상호간에 서로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불평을 한다. 그리고는 낙심한 사람들 같은 모습을 하고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무 축복이 되지 않는다는 인상을 세상에 준다. 형제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다(원고 15, 1899).

Ⅶ. 심판 날을 위한 준비 3:16~4:6

1.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한 구원 3:16,17

16. “그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 하셨느니라.”

우리는 옛날 유다에서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 두 부류의 사람들을 발견하게 된다. 말라기는 하나님께 여전히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의 기별을 전한다. 하나님의 기념책에는 의로운 행위가 빠짐이 없이 영원히 기록된다. 거기에는 유희를 물리친 것, 악을 이긴 것, 부드러운 자비로 표현한 말이 모두 자세히 기록된다. 그리고 모든 희생적 행위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고난과 슬픔이 모두 기록된다.

〈항상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으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구원과 축복은 한층

더 크고 더 부요하신 축복의 확실한 맹세로 기억의 창고에 항상 신선하게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 이는 그분께서 앞으로 더 많은 축복을 내리실 것이기 때문이다. 주의 축복들은 그 백성들의 필요에 따라 적합하게 주어진다” (월고 65, 1912).

〈신앙의 밝은 면을 나타냄〉

“그대의 경험의 어두운 면을 항상 생각함으로써 원수를 기쁘게 하지 말라.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라. 우리들이 만일 예수를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말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에 관해서는 더 적게 생각하고 말하면 우리들은 그분의 임재를 훨씬 더 크게 느낄 것이다. 만약 우리들이 주 안에 거하면 주께서는 우리를 평화와 믿음과 용기로 충만케 해 주실 것이요, 우리가 집회에 임할 때에 말할 만한 승리의 경험을 갖게 해 주실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분명하고 강한 증언을 듣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주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이 귀한 감사의 표시는 주와 같은 생애가 뒷받침될 때에 거의 억제할 수 없는 능력을 갖게 되고 그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 크게 역사한다. ... 슬퍼 보이는 시련을 매우 슬프게 말함으로써 우리 주를 욕되게 해서는 안된다. 모든 시련들에 대하여 교육시키는 한 교사들로서 받아들이면 기쁨이 생길 것이다. ...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담하고 있을 때에 원수는 매우 즐거워한다. 그러나 그분은 구주의 지키시는 능력 안에서 모든 영혼들이 승리하기를 원하신다” (안교 1905. 3. 7).

17.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두가지 놀라운 약속을 하셨다. 첫째는, 하나님

의 특별한 소유([히]segullah"개인의 재산")를 삼을 것이란 말은 곧 금이나 은 같은 보화처럼 그분에게 소중한 존재로서 그분의 영적 가족의 일원이 됨을 가리킨다. 둘째는, 장차 임할 진노로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아끼고 보호하실 것이다(4:1).

〈실증될 약속들〉

“이 성경의 마지막 말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갖게 될 경험의 윤곽을 보여준다. 우리는 한 백성으로서 우리 앞에 놀라운 미래를 갖고 있다. 말라기 3장의 약속들은 문자 그대로 실증될 것이다” (편지 223, 1904).

〈기도를 기다리는 천사들〉

“보다 더 깊은 경험과 경건을 위하여 매우 열렬하게 간구해야 한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행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약하고 실수를 많이 범하는 그의 자녀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주님은 그들의 기도와 간증을 귀 기울여 들으신다. 매일 매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은 주께로 다가가고 있는 것이다. 천사들은 그들의 뉘우치는 기도를 하나님께 전해 드리고 하늘 책에 기록하기 위하여 날개를 펴고 기다리고 있다” (편지 90, 1895).

Ⅸ.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의 멸망3:18~4:1,3

18. “그 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 구절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시간낭비이며, 악인들이 복을 받고 잘 산다고 불평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던(2:17, 3:14,15) 이들에

대한 즉각적인 대답이다. 장차 임할 여호와의 날에(4:1) 썸이 치러지고 공의가 펼쳐질 것이다. 의인은 심판을 벗어나고, 메시아 왕국의 축복을 누리며 악인은 진노를 수확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될 것이다. 공의와 불의 사이에 분명한 분별이 있게 될 것이다!

“앞이 청청할 때에는 가라지와 곡식은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밭의 곡식이 익어 누렇게 되면 쓸모없는 잡초들은 여물어 고개 숙인 곡식과는 전혀 다르다. 경건의 모양을 가장한 죄인들이 한동안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섞여서 외형상 기독교인으로 간주되어 많은 사람을 속이고 있지만 이 세상의 추수 때가 이르면 선한 자와 악한 자 사이에 현저한 차이점이 드러날 것이다. 그 때에 교회와는 연합하였으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은 자들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추수할 때가 되면 (말 3:18). 그리스도께서 친히 누가 하늘 가족과 같이 살기에 합당한 자인지를 결정하실 것이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그들의 말과 행실에 따라 심판하실 것이다. 공언은 저울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품성이다. 구주께서는 모든 가라지가 다 알곡이 될 시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곡식과 가라지는 추수 때, 곧 세상 끝날까지 같이 자란다. 세상 끝에 가서는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 불에 사르고 알곡은 모아 하나님의 곳간에 들여 놓는다” (실물교훈, 75).

〈싸워야 할 때임〉

“율법에 던져지는 경멸 때문에 율법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거나 유혹에 굴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라 이는 그 사실이 바로 우리의 온 마음과 영혼과 목소리를 다하여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이니이다” 라고 기도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온 세상이 다 멸시한다 해도 진실 되고 양심적인 자는 반역자로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이 때야 말로 나의 충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시고 가장 큰 존귀를 입으실 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율법이 가장 크게 멸시를 받을 때, 그 때야말로 모든 참된 그리스도의 추종자들, 곧 마음을 하나님께 바친 자들과 깨끗한 자세로 하나님께 순복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구원하는 믿음을 위해 굳게 서야 될 때이다. “그 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투사가 가장 필요할 때가 바로 싸워야 할 때이다” (리뷰 1897.6.8).